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럽, 부실 정부채권 매입 및 대출보증기금 설립

□ 최근 유럽연합은 유로지역 재정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대처방안을 일단위로 발표함.

o 남유럽국가의 재정문제는 유로지역의 금융거래 상호 의존성에 비추어 볼 때 유럽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한 유럽연합은 재정안정 구제금융기금마련, 재정·경제정책 공조화, 유럽중앙은행의 부실 정부채권 매입, 대출보증기금 설립, 헤지펀드에 대한 엄격한 감독 추진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기 대처방안을 연일 발표하고 있음.

□ 유럽중앙은행(European Central Bank)은 5월 17일 165억유로(23.5조원) 규모의 유로지역 정부채권을 매입했다고 발표함.

o 금번 ECB의 부실국채 매입 결정은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나, 그간 정부채권의 매입 불가원칙이 깨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.
o 7,500억유로(1,066.6조원)의 재정안정 구제금융기금 마련, 유럽중앙은행의 시장개입 의사 천명에도 불구 5월17일 달러 대비 유로화가 2006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ECB의 시장개입 결정을 부추긴 것으로 보임.
o 정부채권 매입에 대해 독일 등은 물가안정 기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으나, ECB의장 등은 정부채권 매입은 미국과 영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취한 양적 통화확대와 다르다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를 위해 단기고정예금 부문의 유동성 환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.

□ 유럽 재무장관들은 5월 18일 모임을 갖고 4,400억유로(625.7조원) 규모의 대출보증기금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함.

o 유로지역 회원국이 보증하는 대출보증기금은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금융거래세 부과 등의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짐.
o 대출보증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밝혀지지 않았으나, 대출보증기금의 주주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하며, 수혜국은 유로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기본 골격은 정해짐.

(Financial Times, 5/17, 5/18)